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세계 2위 조코비치-광서버 로딕

"멋진 테니스 쇼 펼치겠다"

노박 조코비치

앤디 로딕

오늘 한국서 슈퍼매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경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XI에서 일전을 벌이는 노박 조코비치(세계랭킹 2위·세르비아)와 앤디 로딕(10위·미국)이 처음 만나는 한국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조코비치와 로딕은 1일 서울 현대카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한국 방문을 통해 네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소감을 밝혔다.

라파엘 나달과 로저 페더러의 '양강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조코비치는 2008년 호주오픈 정상에 올랐고 최근 끝난 US오픈에서도 나달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세르비아의 '테니스 영웅'. 샤라포바나 로딕 등 다른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흉내 내는 쇼맨십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같은 재미를 기대해도 좋으냐는 질문에 조코비치는 "물론이다. 쇼를 기대해달라"며 "로딕이 (자기 흉내 내는 것을) 허락해줘야겠지만 힘이 닿는 한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테니스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2003년 US오픈 챔피언으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로딕 역시 조코비치에게 '완성된 선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선수다.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고 약점이 거의 없어서 테니스 선수라면 누구나 그와 베이스라인에서 경기하기를 꺼린다"고 칭찬했다.

한국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다짐도 같았다. 로딕은 "시범 경기는 선수들의 개성이 더 잘 드러나는 만큼 팬들에게 더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직 따로 준비한 대본은 없는데 지금이라도 함께 써봐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이 첫 방한인 조코비치와 로딕은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과 경기로 한국을 기억했다. 이형택과 12번에 걸쳐 대결한 적이 있는 로딕은 "선수생활을 시작하던 시절에 이형택 선수와 자주 만났는데 그와 경기하는 것은 항상 즐거웠다"고 말했다. 조코비치 역시 "2006년 독일에서 열린 대회에 이형택과 같이 참가해 연습을 같이했는데 '나이스 가이'였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연합뉴스

김비오 "감 잡았어" 김비오가 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남코스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 2라운드에서 4번홀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희 WIBA 올해의 선수

최우수 명승부상도 수상

세계 여자프로복싱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오른 복서 김주희(24·거인체육관)가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정문호 거인체육관장은 1일 "김주희가 WIBA 올해의 선수와 최우수 명승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라이언 위소우 WIBA 회장 명의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관장은 "아시아선수가 WIBA 올해의 선수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희의 시상식은 오는 12월 27일 미국 마이애미의 WIBA 사무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남자탁구 이번엔 중국 넘을까

월드팀컵 클래식, 강호 독일 제압 결승 진출

한국 남자 탁구 대표팀이 세계 정상급 8개국이 경쟁하는 2010 월드팀컵 클래식에서 유럽의 강호 독일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중국과 맞붙는다.

한국은 30일(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남자부 준결승에서 독일을 3-1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랭킹 1위 마롱과 왕하오(5위), 장지커(3위) 등 정예 멤버가 총출동한 중국과 만나 지난해 대회 결승에서 중국에 당한 패배 설욕에 나선다.

세계선수권대회 상위팀과 인터콘티넨탈컵을 통해 올라온 팀 등 모두 8개국이 참가해 총상금 28만9천달러를 놓고 토너먼트를 벌이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국내 톱랭커 주세혁(삼성생명)과 맏형 오상은(KT&G), 차세대 에이스 이정우(농심삼다수), 정영식(대우증권)이 출전했다.

세계랭킹 4위 김경아(대한항공)와 박미영(삼성생명), 석하정(대한항공), 양하은(흥진고) 등이 출전한 여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에 1-3으로 패해 탈락했다. /연합뉴스

롯데 이재곤 VS 두산 홍상삼 '영건 대결'

프로야구 준PO 3차전 … 두산 2연패 '벼랑'

롯데의 이재곤과 두산 홍상삼이 팀의 운명을 건 '영건 승부'에 나선다.

2일 오후 2시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2010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린다.

화끈한 방망이의 롯데는 앞선 1·2차전에서 전준우에 이어 이대호의 결승홈런을 앞세워 2연승을 달리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두 팀의 사활이 걸린 3차전에서는 패기와 패기의 대결이 예고됐다.

신바람 행진중인 롯데는 올 시즌 거인 마운드의 샛별로 등극한 이재곤(22)을 선발로 내세웠다. 두산은 3년차의 신예투수 홍상삼(20)에게 3차전 선발을 맡겼다. 경험 많은 베테랑 투수들의 대결이었던 1·2차전과 달리 3차전에서는 패기의 승부가 벌어지게 된 셈이다.

2007년 입단한 이재곤은 경찰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느라 올 시즌 처음 1군에 이름을 올렸다. 언더핸드인 이재곤은 싱커를 주무기로 올 시즌 22경기에 나서 4.14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3패를 기록하며 롯데 마운드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올 시즌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4차례 등판해 패 없이 3승을 챙겼다. 부상병동 롯데 마운드에 구원군이 됐던 이재곤은 안방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겠다는 각오다.

두산의 영건 홍상삼은 적지에서 위기의 팀을 구해야 한다.

2009년 데뷔 2년 만에 1군에 진입한 홍상삼은 힘있는 직구를 앞세워 9승을 수확하며 두산의 깜짝스타가 됐었다. 그러나 올 시즌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30경기에 나온 홍상삼은 6.42의 방어율로 4승을 수확하는데 그쳤다.

맞수가 된 롯데와의 대결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했다. 올 시즌 롯데와 5번의 대결에서 방어율은 9.87까지 치솟는다. 17과 3분의1이닝 동안 5개의 홈런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의 낙점을 받은 홍상삼은 지난해 '롯데 킬러'로 이름 높았다.

지난 시즌 거둔 9승 중 4승은 롯데를 상대로 한 승리였고, 지난해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도 선발로 등판해 롯데 타선을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막았었다.

홍상삼은 명예회복은 물론 준플레이오프 전세 뒤집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됐다.

한편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양용은은 2일 준플레이오프 3차전 시구자로 야구팬들 앞에 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박준성(목포 사랑방신문대표)·김경열씨 장남 천정군 김희수·조민정씨 장녀 현경양=2일(토) 낮 12시 목포 알리앙스 1층(금강홀)

▲박영방(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정종순씨 장녀 혜옥양 명래식·모덕심씨 장남 성훈군=2일(토) 오후 1시 목포 웨딩팰리스 1층(아젤리아홀)

▲주영신(도교육청)·박성옥씨 차남 현수(광산구 관광체육시설 과장)군 정현수(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시설부)·조문자씨 장녀 지향(치평중 교사)양=2일(토) 오후 1시1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1층(영빈관)

▲손정옥·박일순씨 장남 상원(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군 최성권·위경애씨 장녀 혜진(KBS 광주방송총국 기자)양=3일(일) 낮 12시 서구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홀.

부음

▲홍을순씨 별세 정구선·구창·구충·구일·구순씨 모친상=발인 3일(일)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정왕기씨 별세 병욱·병학·정화씨 부친상=발인 2일(토)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모래씨 별세 김복호·신호·현철·영님·영순씨 모친상=발인 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정태만씨 별세 용순·용정·승운·영초·차순·송초씨 부친상=발인 2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고수복씨 별세 김만기·경주·경찬씨 모친상=발인 2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강성수 님(남/62세)
子/子婦 : 강명환·최혜미, 주호
女/ 壻 : 강진숙/김명수
• 호실:402호 • 발인:10월3일 • 장지:나주 다시 선영

故 김창호 님(남/42세)
子 : 김준호
호실:102호 • 발인:10월2일 • 장지:영락공원

故 박남현 님(남/68세)
子/子婦 : 박정주·김미현, 정호·김주희 현수·고영희
女/ 壻 : 박희진·최진태
• 호실:101호 • 발인:10월2일 • 장지:화순 도곡 선영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양동일·동혁씨 부친상 김남재 씨 빙부상 미망인 기윤희 발인 : 10월3일(일) 00시00분 선영 연락처 : 250-4412
▲조흥현·봉호·순호씨 부친상 강사남·김성현·문우식씨 빙부상 발인 : 10월3일(일) 12시00분 장지 : 임실호국원 연락처 : 250-4410
▲태영·계춘·계선씨 모친상 근휴 씨 빙모상 발인 : 10월3일(월) 09시00분 장지 : 곡성군 목사동면 선영 연락처 : 250-4409
▲박종화·종암·종준·종신씨 모친상 이해선·이송래·김완수씨 빙모상 발인 : 10월2일(토) 09시00분 장지 : 함평읍 옥산리 선영 연락처 : 250-4407
▲정제훈씨 모친상 이병서·송지흔 씨 빙모상 발인 : 10월3일(일) 09시30분 장지 :장성 삼서면 선영 연락처 : 250-4416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운 연인과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 하남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방가?방가! (12세)	1관	슈퍼배드(전체)/레지던트이블4(18세)
2관	마루밑아리에티/퀴즈왕/그랑프리	2관	해결사(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전체)/아저씨(18세)	3관	무적자 (15세)/아저씨 (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4관	캣츠앤독스2(전체)/레지던트이블4(18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5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5세)
6관	슈퍼배드(전체)/레지던트이블4(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해결사(15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슈퍼배드/레지던트이블4/해결사	8관	시라노-연예조작단/퀴즈왕
9관	무적자 (15세)	9관	슈퍼배드(전체)/해결사(15세)
10관	해결사 (15세)	10관	무적자(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최고급관
2관	무적자(15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4관	해결사 (15세)
5관	레지던트이블4 (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마루 밑 아리에티(전체)
8관	그랑프리(12세)
9관	무적자(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마루 밑 아리에티(전체) 아저씨 (18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4관	슈퍼배드(전체)/퀴즈왕(15세)
5관	무적자 (15세)
6관	레지던트이블4 (18세)
7관	방가?방가!(15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